“사진보니 생김새 비슷” 지만원 억지 주장

국방부·법원 “개입설 허위” 판명, 증거문건도 공개
가짜뉴스 시작은 전두환 신군부 정치 공작서 비롯

5·18 39주년 이젠 진상 규명이다

〈5·完〉북한군 광수는 가짜

1980년 5월, 신군부가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감추기 위해 39년이 지난 지금에도 색깔론을 펼치며,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빨갱이다”라는 수식어를 붙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극우 논객 지만원은 근거가 전무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명백히 허위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5·18 망언’의 토대가 된 가짜뉴스가 권력을 잡으려던 신군부의 정치 공작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만원이 지목한 ‘광수’는=지만원이 ‘○○번 광수’라 부르며 북한군으로 지목한 광주시민은 600여명에 달한다. 그는 5·18 당시 사진에 찍힌 시민들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내세운다.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있었고, 이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해괴한 주장이다.

그가 말하는 근거란 5·18에 참여한 시민들의 눈썹 모양과 이마의 형상을 북한 측 인물의 사진을 비교해보니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이유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들을 ‘광수’라 칭하며,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둔갑시켰다. 고령의 한 여성은 ‘북한 장군 리을설’이 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광수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는 논리를 폈다.

시민군이었다는 곽희성씨는 “군대를 만기 제대했고, 둘 있는 아들도 전부 군대를 다녀왔다. 그런데 내가 왜 북한군이냐”며 “지만원은 나에게 북한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춘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씨는 5·18 기록사진(전남도청을 나서는 모습)에 등장하는 박남선씨를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이라며 ‘제71번 광수’라고 지목했다. 황장엽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한 뒤 2010년에 사망했는데도 지씨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씨는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다.

◇북한군 광주 잠입 없었다. 증거문건 공개=지씨의 주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입증됐다. 2013년 5월 국방부는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2월에도 국방부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의원회관 공청회에서 재차 제기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됐다.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는 증거 문건도 있다.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이 입수한 미국 정부 문건(체로키 문서)을 보면 미국은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전두환 신군부가 거짓 정보를 뿌린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셔록 기자는 ‘북한군이 광주에 잠입해 폭동을 조종했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체로키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6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와 법원 판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된 바 있다.

◇개입설 배후는 ‘전두환 신군부’=이러한 증거문건이 공개됐음에도 지씨를 필두로 한 ‘가짜뉴스’는 당시 권력을 잡으려던 전두환 신군부의 정치 공작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군부는 정치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이전부터 북한의 남침설을 끊임없이 유포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광주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언론을 통제한 뒤 불순분자의 폭동으로 몰아갔다. 또 미국 정부에도 거짓 정보를 흘렸다. 광주에서 시위대가 인민재판을 시행하고, 무장 투쟁 장기화를 위해 폭도 2천여명이 산악지대로 도주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간첩이 광주에 침투해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남침 징후가 있다고 퍼뜨렸다. 지씨의 ‘가짜뉴스’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신군부의 북한군 개입설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다. 국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된 내용을 39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군’을 거론하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5·18관련 가짜뉴스는 신군부의 정치 공작이 그 뿌리며, 신군부의 망령이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서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가짜뉴스는 5·18 당시 광주시민들에게 떠돌던 연세대·고려대 학생 600명이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로 온다는 소문을 각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이철규 열사 30주기 추모제…“의문사 규명해야”

“우리 아들 사인을 밝혀달라”
황정자 어머니 한맺힌 울음

민주화운동을 하던 중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고(故) 이철규 열사의 30주기 추모제가 6일 오전 광주 북구 5·18망월묘지(민족민주열사묘지)에서 열렸다.

“철규야. 우리 철규를 어쩌자고 우리 아들을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죽였을꼬. 어쩌자고 우리 아들을…”

조선대학생 이철규 열사의 30주기 추모제가 열린 6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영문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한이 맺힌 목소리가 전역에 울려 퍼졌다.

이 열사 어머니인 황정자씨는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지 살피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의 죽음을 밝히고 죽어야 할 것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발언을 마친 황씨는 억울하게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 듯 애처로운 목소리로 “우리 철규야”를 외치며 끝내 흐느꼈다. 추모제에 참석한 추모객들도 황씨의 흐느낌에 터져 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구묘역에서는 5월 단체와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9년 5월10일 제4수원지에서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된 이 열사의 추모식이 거행됐다.

추모제는 이 열사의 삶과 투쟁을 담은 노래공연을 시작으로 이 열사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사 등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전태일 열사의 유가족 등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전국의 민족민주열사의 유가족 20여명도 함께 했다.

이철우 상임 행사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30년 전 이 열사의 안타깝고 참혹한 죽음을 우리가 잊지 못해서,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며 “그는 짧은 삶을 살면서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합을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이 열사는 교지 ‘민주조선’ 편집위원장을 맡았다가 교지에 게재한 논문이 문제가 돼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상 수배됐다. 그는 같은 해 5월3일 광주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으로 붙잡힌 다음 행방불명됐다가 일주일 뒤인 10일 제4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가기관은 “경찰을 피해 수원지 철조망을 넘어 도망치려다 미끄러져 익사한 것”이라고 ‘실족 후 익사’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선 스님(1989년 장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열사가 의문사한 날 광주 시내에서 5·18 행사 회의를 하던 중 시체가 떠올랐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면서 “주검을 확인해보니 사지는 굽어 있었고, 얼굴은 팅팅 부어서 알아볼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남자는 물에 빠져 죽으면 엎어져 있는데 이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냐”며 “이 열사는 통닭구이 고문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불능’ 결정을 내렸고, 이 열사는 결국 2004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최환준 기자

의붓딸 살해 계부 검찰 송치…‘보복살인’ 적용

경찰, 영장 기각 친모 보강수사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1)씨를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30분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김씨는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만에 발견되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김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할 방침이다.

살해사건과 별도로 의붓딸 강간미수 등 김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모(39)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간다.

앞서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유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유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범행 과정에서 물적 증거로 드러난 동선이나 객관적인 사실은 부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유씨가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가담한 것인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띠동갑 어른한테 인사 안해(?)”

퍽퍽이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경찰서행.

○…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67)씨는 B(55)씨와 마을주민 사이로 지난 2일 오후 5시37분께 서구 한 슈퍼 앞 노상에서 B씨가 자신의 일행을 보고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방지다며 목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나이가 띠 동갑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매번 자기 일행들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자 무시받는 기분이 들었던 같다”면서 “한 마을에서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을텐데, 결국에 서먹한 사이가 됐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문철헌 기자